

Why I take the piano on the road ... and in the air

00:16	최근에, 저는 수천명의 브라질 관중들 위에서 조지 프리드리크 헨델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. 또한 저는 암스테르담의 거리를 같은 작곡가의 음악을 연주하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. 한번 보시죠.
00:34	(음악 :조지 프레데릭 헨델, "알레그로.") (연주자 : 다리아 반 덴 버르켈)
00:53	(영상) 다리아 반 덴 버르켈: 저는 저 건물 3층에 살아요. (독일어) 저는 저기 모퉁이 쪽 건물에 살아요. 실제로 저기 살아요. 모퉁이 쪽에요. 저는 당신을 환영합니다.
01:00	남자 : 재미있어 보이니? 아이들 : 네!
01:03	(독일어) "헨델 하우스 콘서트"
01:28	(박수)
01:40	이 모든 경험은 여러 방면에서 저에게 정말 마법같은 경험이었어요.
01:45	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물겠죠,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? 이런 일은 음악가들에게 흔한 일은 아닐 텐데요. 음,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제가 음악과 사랑에 빠졌고,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이 느낌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죠.
02:01	이 일은 몇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. 저는 독감에 걸려 집에 있는 소파에 앉아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있었죠. 서핑 도중 헨델이 키보드를 위한 악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, 음,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. 전 그 사실에 대해 몰랐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악보를 다운로드받았고,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후에 저는 순수한 상태에 도달 할 수 있었습니다. 편견 없는 순수한 감동 말이죠. 그것은 제가 음악에 경외감을 가지게 된 특별한 경험이었고, 저는 오랫동안 이 경험을 하지 못했었죠. 여러분이 이 노래를 들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. 제가 연주할 첫 번째 음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
02:49	(음악)
03:14	이 노래는 꽤 서정적입니다. 그렇죠? 하지만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 이러한 노래가 펼쳐집니다.
03:23	(음악)
03:50	이번 노래는 꽤 역동적입니다. 그렇죠? 아직 곡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전 몇 분 동안 우리는 두 개의 대조적인 특징을 가진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아름다운 서정성과 역동적인 에너지죠. 그리고 저는 이 두 요소가 인간의 감정표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음악의 순수함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음악을 효율적으로 듣게 합니다.
04:19	저는 수많은 어린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. 일곱 여덟살 된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죠. 그리고 제가 베토벤, 바하, 심지어 스톡하우젠이나 재즈 음악을 연주할 때에도 아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줍니다. 정말로 음악을 듣고 싶어하고, 음악을 들으며 편안해 합니다. 하지만 12살, 13살정도 되는 겨우 몇 학년 위의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러 왔을 때, 저는 가끔 이 12살 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린아이들보다 더 힘들다는 걸 경험했죠. 음악이 어려우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실제로 친구, 부모님, 매체 등 다른 사람의 음악 취향을 따라갑니다.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죠. 이 아이들은 꾸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저는 우리가 7살이나 8살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처럼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. 심지어 다 자라고 나서도 말이죠. 이것이 제가 콘서트 홀이 아니더라도 길거리나 온라인, 심지어 공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이유입니다. 진실되게 음악을 듣고 편견 없이 음악을 듣는
05:35	호기심의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죠.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. 지금 이곳에서 말이죠. (음악:조지 프레데릭 헨델, "G장조 샤콘") (연주:다리아 반 덴 버르켈)
09:17	(박수) 감사합니다. (박수)